

해남군, '살기좋은 농어촌수도' 속도낸다

생활여건 개선·경관 보존 등 인프라 구축 7개 면 590억 투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세대어울림 등 건립 주민 공동체 활성화

해남군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실현을 위해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어촌수도 해남의 핵심요소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기좋은 해남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 농촌협약을 통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7개 면에 50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삼산, 화산, 옥천 3개면은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현산, 복일, 계곡 3개면은 면 청사 복합화 사업이 이뤄진다.

또한 북평면을 포함해 전체 7개 면에 서비스를 전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도 병행해 추진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을 투입해 산이면에 세대어울림 커뮤니티 센터, 마산면에 힐링센터 건립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

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관내 총 11개 마을에서 추진 중이다. 4년에 걸쳐 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주택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6년 송지 송정, 문내 서하 마을까지 7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3년간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관내 13곳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안길정비, 쉼터 조성 등 마을 구석구석 기본 주거환경 및 생활 수준을 높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어촌수도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농어촌 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은 최근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했다. <영광군 제공>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쉽게 배워”

영광군,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어르신 대상 탄소중립 생활 습관 전달

영광군 17일 “어르신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위해 하반기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11월까지 지역 경로당

과 마을 이장회의 등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 교육으로 운영되며,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 습관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하는 탄소 줄이기 실천 방법 등이며, 교

육자료 배부와 영상자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 어르신들은 “환경에 대해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분리배출을 더 신경 써야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나주시, 농촌자원 시범사업 추진성과 공유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주목

나주시가 농촌자원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며 농촌자원의 가치 확산과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에코왕곡체험휴양마을에서 열린 '2025년 중앙단위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중간평가회'에서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조성기술 시범사업'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평가회는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지자체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와 시범사업 참여 시군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주시와 영암군의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례 발표와 현장 견학, 발전 방안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나주시는 에코왕곡체험휴양마을에서 추진 중인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자원을 활용해 위계이전 공간과 여가 및 힐링 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민 등 외부 관광 수요를 유치해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평가회 기간에 지역 관광, 문화 자원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함께 소개하며 나주의 매력을 참석자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도 펼쳤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농촌자원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촌이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정환 기자

무안군의회, 에너지·치유농업 정책 연구용역 착수

무안군의회가 에너지 전환과 치유농업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발족한 의원연구단체인 '에너지 대전환시대 준비 연구회'와 '치유농업 정책개발 연구회'가 각각 선정한 연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각 연구단체의 의원, 연구책임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의 목적, 과업수행 방안,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 준비 연구회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과 이익공유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무안군의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유농업 정책개발 연구회는 농업과 복지의 융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치유농업의 개념 정립과 무안군 실정에 맞는 정책 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중 에너지 대전환시대 준비 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모두가 에너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무안군이 에너지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윤택 치유농업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의원은 “무안군 치유농업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과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12월까지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및 의안 발의 등 정책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군의회는 최근 에너지 전환과 치유농업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군의회 제공>

고소 바삭...진도 '곱창김 삼각김밥' 출시

'갓 참치마요'·'참 닭갈비' 2종 BGF리테일 협업 CU서 판매

진도군은 ㈜비지에프리테일(BGF리테일)과 협업해 물김 위판액 전국 1위인 진도에서 생산된 곱창김으로 만든 삼각김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대표 편의점 싸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진도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곱창김을 활용해 삼각김밥 2종을 출시했다. 진도 곱창김과 갓참치, 참치를 마요네즈로 버무려 만든 '곱창김 갓참치마요', 진도 곱창김과 닭갈비에 참치를 더해 만든 '곱창김 참 닭갈비' 삼각김밥이다.

진도 곱창김의 고소함과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 더욱 맛있는 삼각김밥이 만들어졌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진도 김은 적조가 없는 청정바다에서 생산돼 미네랄과 칼슘이 풍부하며,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검정머거리(블랙푸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진도 곱창김으로 만든 삼각김밥. <진도군 제공>

도 대기업과 협업해 품질 좋은 진도의 농수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진도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비지에프리테일, 맥도날드 등과 협업해 진도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통해 진도 농수산물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해양안전 현장 체험

초·중·고 교사 70명 대상 사고 발생 대처 실습 호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는 17일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70여명을 초청해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체험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사들이 직접 해양안전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학교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해양안전체험관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해양사고를 가정한 구조 시뮬레이션, 구명설비 착용 및 사용법, 해양안전 교육자료 활용 방법 등을 체험했다. <사진>

특히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남권스마트센터는 2023년부터 도서 및 내륙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체험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남권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방문하고 다양한 안전 교육과 실습을 받아볼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무천 목포지사는 “해양안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돼 해양안전 의식이 학교 현장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기찬시네마는 영화 관람료가 1천원”

영암군은 17일 “10월31일까지 영암기찬시네마 관람료를 1천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20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국비 1천7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국비 지원에 따라 1인당 7천원이던 기존 관람료 중 6천원을 할인해 누구나 1천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 할인은 현장 예매만 적용되고, 마련된

예산에 따라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진중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국민이 부담 없이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즐길길 바란다”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기찬시네마는 2개의 상영관에 총 98석 규모를 갖췄으며 최신 개봉작부터 독립·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상영하고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